

친환경 古材 - 전통·자연미의 상품화 가능하다

- '신토불이'·건강친화적 '이미지, 품질인증 등 신뢰 제고 노력 기울여야 -

고재(古材)는 한옥(韓屋)에 쓰인 오래된 목재로 신재(新材)의 반대 개념이다. 정확히 정의하면 6·25 전쟁 전에 지어진 남대문과 같은 건축물, 한옥이나 사찰의 대들보, 대문, 마루틀, 마루판 등으로 사용된 목재를 고재라고 한다. 여기에 해방 전에 건축된 공공청사, 공장, 학교 등에 사용된 목재도 고재에 포함하기는 하지만 한옥에 사용된 고재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

소나무 비중 높아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에 쓰인 목재는 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이다. 다른 나무들도 한옥의 건축재로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소나무는 단순한 건축재가 아닌 우리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한 나무이다. 소나무로 지어진 집에서 소나무로 취사와 난방을 하고, 소나무로 만든 각종 생활도구를 사용하였다. 소나무는 나이를 먹으면 나무껍질이 붉어져 적송(赤松)으로, 그리고 내륙 지방에 주로 분포하므로 육송(陸松)으로 불린다. 건축재, 선박재, 가구재, 조각재 등에서 용되어 목조문화재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소나무가 대부분인 고재는 지난 1990년대

부터 가구로 제작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우리의 전통과 자연미를 좋아하는 특정 소비자층(마니아)에 의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고재의 자연미와 친환경성을 살려 고재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를 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고재의 장단점

신재가 국산 소나무 원목이라면 고재와의 차이는 크지 않다. 고재가 신재보다 좋은 점은 우선 우리나라 소나무라는 점이다. 최근 제작되는 가구는 원목 가구라 할지라도 대부분 수입 목재이다.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가 사람에게 가장 좋다는 것이 고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계절이 명확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자라고 건조되어, 동일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고재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 가구나 건축 고재로 만든 침대.



재로 사용하였을 때 나오는 아름다움으로 나뭇결과 색감에서 세월의 흔적과 자연미가 묻어난다. 신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감이다.

셋째, 고재는 친환경적 목재이다.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수입 목재와는 다르게 송진향과 피톤치드 등이 배출되기도 한다. 이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을 해결하기도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재에서는 '인체에 유익한 천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성분'이 다량 방출된다. VOC에는 인체에 유익한 천연 VOC(알파피넨, 리모넨, 천연 테르펜류 등)와 석유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인공 VOC(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가 있다. 소나무 판재에서 방산되는 VOC는 95% 정도가 천연 테르펜류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수입 남양재 합판의 1/10에 불과하다. 천연 VOC는 인체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콘크리트 주택에서 고재를 활용한 천장 인테리어.





고재로만든 콘솔.

발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항균 효과를 지니고있다.

다음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연 건조되어 나무의 뒤틀림이 적는데 신재와 비교되는 항목이다. 목재로 가구를 제작하거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나무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이다. 목재의 변형은 갈라짐과 뒤틀어짐 현상인데, 고재는 신재에 비해 매우 적다.

반면, 고재의 가장 큰 단점은 대량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50년이 상된 한옥이나 사찰 등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특히 한옥 고재의 확보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신재와 같이 대량 공급이 불가능하다. 신재에 비해 2~5배 정도 고가인 점도 단점이다. 일부에서는 신재를 벌목하여 인공적으로 건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건조시켜 고재의 특성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고가구와는 구별

고재는 현재 대부분이 고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방 및 가구점에 의해 가구로 활용된다. 고재 가구로 불리는데 이는 고가구와는 구별된다. 고가구는 옛날 가구이지만 고재 가구는 고재를 사용하여 새로 제작한 가구이다. 오랜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나무의

거친 결을 살리고 못이나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으며 나무의 짜임과 이음방식으로 제작한다. 한옥에 사용된 목재 자체가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이를 살려 오염물질 제거 및 표면 손질을 한 후 그대로 제작하는 종류와 현대적 디자인으로 가공한 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고재 가구의 종류는 침대, 식탁, 책장, 거실 가구 등으로 고재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 제작에 사용된다.

고재는 또한 일부만이 한옥의 건축재로 다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수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한옥에 사용된 목재를 새로 건축하는 한옥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품질 인증 필요

고재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층도 제한적이지만 매우 매력적인 목재이다. 특히, 오랜 세월의 흔적 속에 나타나는 자연미와 친환경적 목재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현대 가구 제작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재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택 사업에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고재의 인증 장치가 필요하다.

고재의 인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재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다. 고재와 국산 원목 소나무를 같은 품목으로 하고 고재를 3단계로, 신재를 2단계로 구분하여 국산 소나무 인증 등급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강송과 같은 고재는 1등급, 육송 고재는 2등급, 한옥과 사찰 외에서 나온 고재는 3등급, 10년 이상 자연 건조된 국산 소나무는 4등급, 10년 미만의 자연 건조 국산 소나무는 5등급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현재와 같이 고재 가구 공방에서 고재의 수급과 가구의 제작으로 함께하는 체계가 아닌 고재 수급만을 담당하는 업체와 고재의 가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소비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친환경 고재의 활용 방안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보면 먼저 한옥의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최근 현대적 감각과 수요에 부응하는 한옥 건축 기술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향후 5년간 매년 5,000호의 한옥이 건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설계 기법 및 내화력 강화,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등을 통해 5년 후부터는 5년간 약 1만 호의 한옥이 건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 목재 가공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5,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로 전망된다. 대들보와 같은 건축재로의 활용은 불가능하겠으나 창틀, 바닥 등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파트 등에서는 친환경 소재 및 자연미를 내세워 고가 주택에 옵션 품목 등으로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관, 천장, 벽면 인테리어에 고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고재는 건조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목재로 가공 시에 손실 부분이 많고 가공 작업이 신재에 비해 어렵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하다.

표준화 및 규격화가 이루어진다면 고재의 현관, 천장, 벽면 인테리어에 활용성은 제고될 수 있다. 또 아파트의 방 하나를 고재로 꾸며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창틀, 붙박이장, 침대 등을 함께 공급하여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중년층 및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주택 업체가 시도한 바 있는 주방이나 거실 가구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skang@cerik.re.kr